SNUAC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2

상이한 복지국가레짐과의 조우: 한국숙련여성이민노동자의 육아돌봄노동을 통해 본 독일의 복지국가레짐과 젠더

권자옥

유럽의 복지국가레짐연구에서 이민자에 관련한 연구는 이민자가 기존의 복지체제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구원자'인지에 대한 논의로 수렴되어왔다. 특히 아시아 여성이민자의 경우 돌봄노동자 혹은 가사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복지국가레짐연구에서 아시아이민여성에 관한 연구는 성인-노동자모델의 '구원자' 혹은 글로벌 케어레짐의 '희생자'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논의되어져왔다. 그러나 EU블루카드의 도입 등 고숙련노동자유입을 위한 최근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 비유럽연합국가 특히 아시아국가를 중심으로 고숙련노동자의 이민이 증가추세 있으며, 한국의 여성숙련노동자의 이동 또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중에서도 고숙련노동자의 유입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독일을 사례로, 한국숙련여성이민노동자가 독일의 복지국가레짐에 편입 혹은 배제되어가는 과정을 육아돌봄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젠더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권자옥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이다. 일본 히토쯔바시대학에서 사회학을 수학했다. 박사학위 수여 후 일본 동북대학교 문학연구과 및 히토쯔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를 거쳐 현재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의 동아시아연구과에서 전임강사로 재직중이다. 주요연구분야는 노동, 젠더, 이민이며 박사논문을 정리한 저서 *The Aspiring Middle Class: State, (Re)Domestication, Rural Women in 1960s and 1970s Korea*가 2023년 Routledge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현재는 (1) 한국 청년층의 해외취업이민정책을 둘러싼 국가, 교육, 노동레짐의 이해관계, 그리고 (2) 한국청년층의 독일취업이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시: 2022년 6월 22일 (수),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220호)